



산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여러 글쓴이가 팔레스타인 민담 “가젤”을 각색한 미래의 설화.¹ 주마나 에밀 아부드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여성 스토리텔러로 이뤄진 넓은 커뮤니티, 챗봇 AI를 활용해 옛 이야기를 리메이크한다.²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금과 은을 갈아내는 물건, 도망 중인 변신-로봇-사슴, 머리카락이 멸종한 세계에 있는 인간의 머리카락 세 가닥, 이곳(here)에서 (혹은 그녀(her)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던 세 형제같은 것들.

이 이야기의 화자는 동반 관계라는 말을 추구하며, 이탈리아의 교향악으로 한 친구를 위로했다. 슈욱, 슈욱. [지표면의 물 가까이서 날갯짓하는 소리.]

여기서—혹은 그녀로부터—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세 형제가 매년 하던 습관에 따라 사냥을 하러 모였어. 그들은 사냥을 즐겼지. 사냥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의 어머니인 위대한 여왕에 관해 몇 가지 말해볼게. 그들의 어머니는 위대한 여왕이었지만 자신의 시대가 곧 끝나리라는 걸 알았어.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어. “듣거라!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세 누이를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공정하고 침착하게 다스리겠다고 약속하려무나.”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흘렀어. 또 다른 날이 왔고, 또 다른 날이 왔지—[천진난만한 질문이 이야기를 멈춘다]:

그게 어디로 갔어? 나는 이렇게 답한다, 하루는 어디로 흘러갈까.

맞아, 그리고 여왕은 세상을 떠났지.

그들은 그녀를 네 번째 남편 옆에 묻었어 (내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년 시절에 농부였던 사람이었지). 그 시절의 관습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바람은 그랬어. 그들은 ‘아인 키니아’ 마을의 흠 없이 깨끗한 샘 기슭에 묻었지.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자, 그녀의 시신이 놓인 그곳에 참나무 한 그루가 자랐어.

라말라에서 서쪽으로 막 7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아인 키니아 마을에는

1. 다음을 참조하라. Ibrahim Muhawi and Sharif Kanaana, Speak Bird Speak Again: Palestinian Arab Folktal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2.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오픈AI 채팅과의 협업은 상당히 호기심을 자아내고 흥미로웠다 (호기심을 느낀 건 내 쪽이고, ‘그것’은 흥미롭게 굴려고 했다). 나는 ‘가젤’의 최소한의 부분을 특정 순서가 아닌 것으로 먹이고 그것을 쓰곤 했습니다. 모든 답변에 너무 많은 내용을 썼고, 이야기를 장악하는 것 같았다. 이 말은 제가 인간 공동 저자와 함께 일할 때, 우리는 개별 부분의 끝을 확장, 기여 및 교환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 두는 경향이 있으며, 그 안에서 다음 저자가 상상하고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경우, AI는 항상 자신의 역할로 이야기를 끝내고 저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천 명의 인간과 만 명이 넘는 비인간이 살고 있어.

여기에 영혼도 포함되는 거야?

그건 아무도 모르지. 영혼을 숫자로 세는 건 부정을 탄다고 여겨지거든.

아인 키니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늙지 않았고, 심지어 분류를 나누는 식민지의 분리에 통합되었을 때도 그랬어. 땅은—그리고 그곳에 기대어, 그 아래와 그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A”, “B”, “C” 구역으로 나뉘었지. 아인 키니야는 “C” 구역에 묶인 탓에 그 당시의 점령 정권이 기반 시설 개발을 금지했어. 이렇게나 공격적인 법의 역설은(공격적이라고 말하는 내 말을 믿어줘) 의도치 않게 마을의 농업 지역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는 점이었지.

뚜렷이 구분되고 서로 대조되는 방향만 존재하는 걸까? 식민적 적대감 아니면 토착민에 대한 보호인 거야?

그런 질문을 하는 건 부정을 탄다고 여겨지잖아—한 때는 악령이었던 것들이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건 또 다른 시기였는데, 1993년 오슬로였고, 사람들이 테이블과 지도 주변에 모였고, 동물들은 초대받지 않았고, 흐르는 물도 부르지 않았어. 불법 정착민은 어땠을까?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서 잘라낸 것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백주대낮에 그랬다고 들었어.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속삭임이 아니야.

아니면,

이 이야기들은 속삭임으로 말을 해. 히스토롬르³. 오래 전 사라진

냄새의 흔적을 기억하려면 종잇장에 가까이 다가가야 해.

참나무는 하루가 오가듯 왔다 사라지는 폭풍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서 있고, 살아가고, 숨을 쉬었어.

그리고 형제들은, 그들은 사냥을 나갔지.

갑자기 가젤 한 마리가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오! 그 가젤이 그들의 눈에 가득 찼어!

그 말은 그들의 눈이 가젤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다르게 표현한 걸까?

맞아.

세 형제는 누가 가젤을 사냥할 것인지를 놓고 다투어. 한 녀석은 “그녀는 내 거야!” 라고 말했고, 다른 녀석은 “그녀는 내 거라고!” 했지. 그렇게 말다툼을 하는 동안 가젤은 형제 가운데 막내를 지나쳤고, 모두가 가젤이 그를 선택 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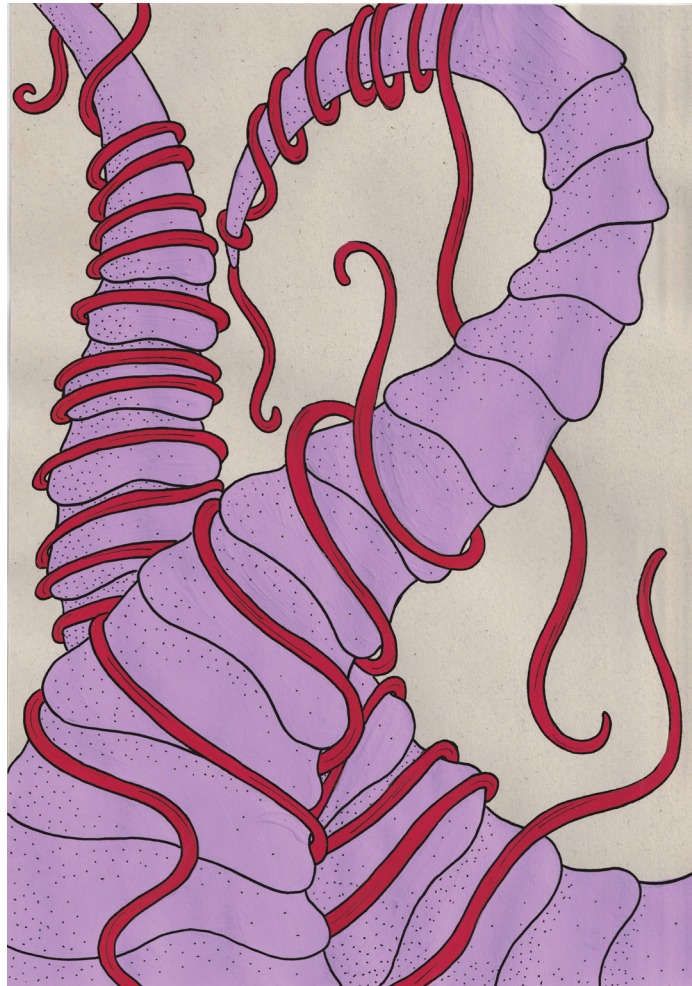
3. 신세계 언어의 새 단어 가운데 하나로 우리 역사의 거짓을 뜻하는 말. 역사(history)+소문(rumor)을 어원으로 한다.



그녀가 정말로 가젤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줘야만 하겠네. 그건 변신-로봇-사슴이었고, 동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었거든. 우리의 이야기는 어쨌든 오래 전 지나간 과거의 미래의 것이니까.

가젤이 막내 동생인 하산 알카데르(Hasan Alqaader, 운명 혹은 숙명을 어원으로 하는 이름)를 선택한 건 그녀가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함을 감지하거나 스캔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미래에는 과거에 속한 우리의 말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감각은 스캔에 의해 완전히 잠식될 거야. 그녀는 그들-인공지능-만큼이나 실재하는 존재였어. 그녀의 스캔은 적중했지.

하산 알카데르가 말했다. “좋아, 형제들. 너희는 이제 돌아가야 해. 가젤은 내 거야.” 그리고 추격전이 시작됐어! 하산은 가젤이 그의 말누나가 사는 마을까지 그를 이끌어 갈 때까지 뒤를 쫓았어.





마을에 들어서면서, 그리고 가젤을 시야에서 놓치면서, 그는 누나를 보게 되었고 그녀가 결혼한 뒤 어디에 사는지 전혀 몰랐기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지. 형제들은 여왕과의 약속을 지켰고 결혼으로 헤어지기 전까지 자매들을 돌봤어.

둘이 만나서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들은 노래와 춤으로 만남을 기렸어. 그녀는 물었지. “동생아,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그가 답했지. “가젤이 데려왔어.” 그는 누나에게 가젤을 쫓아 그녀가 있는 마을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줬어. 알카데르의 맏누나는 말했지. “누구도 가젤의 상대가 될 수는 없어!”

아침이 되자 그는 하던 일을 이어나갔어. 가젤이 나타나서 전에 그랬던 것처럼 속도를 늦추다가 그가 다가오면 도망쳤고, 둘째 누나의 집으로 그를 이끌었지. 그들은 서로를 만나 기뻐고, 음식과 ‘프렌치 75’ 칵테일을 나누며 좋았던 옛 시절을 기렸어. “동생아,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가젤이 데려왔어, 누나.”

“누구도 가젤을 상대할 수 없어!”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일이 벌어졌고, 가젤이라고 이름을 지은 로봇-사슴은 알카데르를 셋째 누나의 마을로 데려갔고, 다시 똑같은 이야기와 마음이 오갔지.

누나들은 각자 “혹시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이 머리카락을 문질러, 그럼 어느새 우리가 거기 있을거야”라며 비밀스런 작별 선물로 빨간 머리카락을 줬어. 알다시피, 빨간 머리 유전자가 사라진 시대였거든. 인간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선 빨간 머리가 우세했고, 결국은 멸종에 이르고 말았어. 이제 휴머노이드-발언자들은 빨간 머리에 가장 강력한 마법이 담겨 있다고 믿었지.

나흘째 날, 다시 한 번 가젤이 나타났고, 그들은 다시 한 번 이전과 같이 행동했어. 그녀는 그의 눈을 가득 채우고, 심장을 스캔해 중요한 활력징후를 확인했고, 달려갔어. 하산 알카데르는 세상과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잊은 채 뛰어올라 그녀를 뒤쫓았고, 나흘째 되던 날, 가젤은 자신의 도시로 그를 이끌었지. 크리스탈 식물군과 다이아몬드 동물들이 있는 미래 도시로. 손뼉을 쳐서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낮을 밤으로, 밤을 낮으로 바꿀 수 있었어. 그리고 모두가 자기 욕망을 쫓는 가운데—인간의 욕망이란 미래에도 지금과 다를 바 없으니까—땅은 끝없이 깜빡이는 불빛으로 가득했단다. 존재란 단 한 순간도 완전한 어둠이나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지. 가젤의 집이 있는 도시에서. “디스코”라고 불리는 도시에서 말이야.



이것이 바로 가젤이라는 이름의 변신-로봇-사슴이 집을 떠나 야생과 과거의 세계를 떠도는 도망자 신세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자기 것이 아니었던 과거로부터 자유를 찾았어. 자신의 트랜스포머 두뇌에 이식된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했지. 고대의 참나무와 마법에 걸린 샘에 얽힌 이야기들. 그녀는 인간 남성의 마음 안에서 “감정”을 탐구한 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어.

*욕망이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 말하는 게 불길하게 여겨진다고는 말하지 말아줘!
그런데, 일단 말이야, 이야기부터 먼저 끝내볼게.*

이제 가젤에게는 전 세계에서 온 구혼자와 겹겹이 겹친 세계에서 온 구혼자들이 나타났어.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할 때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 “내 손으로 만들어낸 피조물을 종으로 부려먹을 남자/여자에게 결혼으로 빼앗기지 않는지니! 마을의 기슭에서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남자/여자라면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으리라. 실패한다면 누구든 유리병에 영혼이 갇히게 되리!”

알카데르는 이쯤 되자 사냥-대상의 정체를 알아차렸지만, 이미 사랑에 빠져버린 터라 시간 여행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어. 내게 조언을 구했지만, 친구가 건내는 그 어떤 말로도 그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없었지. 하지만 내가 지닌 미약한 힘으로 그 둘의 만남을 주선할 수는 있었어. 그들의 시간은 그저 추격전의 긴박함만을 알 뿐이었고. 그 만남에서 가젤은 휴머노이드의 형태로 변신했어.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주려 뺨은 기계 손으로 그의 피부에 난 땀을 식혔어. 그들은 그녀가 침묵을 깨고 [트랜스포머 언어로] 털어놓을 때까지 함께하는 시간을 천천히 바라보았지. 스톨리쓰 즈에어 샤투크 트와이드 이나흐, 엔즈에어스 카술릴 부른. 드윈 타엘 카슈위 비틸, 디른 즈히브 팁다홀 아닐람.⁴

다음 날 아침, 알카데르는 누이들이 준 머리카락을 찾았어. 머리카락 세 묶음을 다 문질렀더니—글쎄! 600마리의 진(jinn)이 나타났어. 가젤은 이제 인간/비인간의 연민을 이해했고—이건 사랑이었을까?—그녀도 그를 도우러 왔지. 그들 모두 산 위에서 작업을 시작했고, 날이 밝기도 혹은 밤이 오기도 전에 [이 둘은 하나였어, 기억나니?], 봐봐! 은하계 모두를 포괄하는 하나의 이름을 걸고—마치 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어.

4.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스토리 작성을 위한 협업의 일환으로 챗봇 AI에게 새로운 언어 생성을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AI의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AI가 새로운 단어를 몇 개 소환했다. AI가 언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몸의 소리를 설명하는 과정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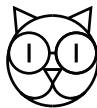
새로운 언어의 이름을 묻자, AI는 이렇게 응답했다. ‘내가 생성한 새로운 언어에 특정한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텍스트에는 특정한 문자와 소리, 단어와 구의 배열 등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여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산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 안에서 두 연인이 만나는,
 내 이야기와 함께 달아났지.
 욕망이란 시원스럽게 침병 튀기는 거야! 침병! 슈욱!
 쉬잇, 쉬잇. 마셔, 마셔라.
 나의 갈증, 내 갈증을.
 나의 갈증 내 목마름은 너보다 더해.
 내겐 단 하나의 운명 뿐이고, 그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
 그녀를 봤니,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
 그녀를 봤니, 그녀는 아니야.

저자 소개

주마나 에밀 아부드는 드로잉, 워크숍, 글쓰기를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의 상상엔 생명을 불어넣고 지지하는 작업을 펼치며, 인간과 비인간이 이야기와 물에 의존하는 시간과 장소를 창작의 동기로 삼는다. 현재 예루살렘과 런던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으며,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슬레이드 미술대학에서 창작 중심의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편집: 잉고 니어만

한국어 번역: 박재용

일러스트레이션: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한국어판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 2023, 주마나 에밀 아부드, 에바 파브레가스 & 와일드 퍼블리싱

스위스 바젤 응용과학대학교(HGK Basel FHNW) 예술 젠더 자연 연구소(Institute Art Gender Nature) 소속 기관